

“손님과 함께 머리 스타일 만들어가요”



‘가오샵’ 김민석 실장

“손님과 함께 머리 스타일을 고민하고 T.P.O에 맞는 머리 스타일을 만들어주는 게 강점입니다. 앞으로도 남성들이 편하게 머리를 할 수 있고 형·동생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헤어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3년째 남성전용 헤어

형·동생 처럼 편한 ‘1대 1’ 맞춤형 손질 T.P.O 맞게 스타일 트렌드 상담·연출도

어쨌든 ‘가오샵’에서 헤어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김민석 실장(31)은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까지 8년째 손님들의 머리 스타일을 만들어주고 있는 유능한 헤어디자이너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김 실장이 헤어디자이너를 전공한 것은 아버지의 조언 때문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앞두고 부모는 동강대 피부미용학과를 추천했고, 학과에 입학해 헤어를 전공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의 원장님에게서 일을 배웠다는 김 실장은 남성 전용인 헤어숍을 조선택 후문에서 함께

하지는 원장님의 제안을 받고 지금의 ‘가오샵’에서 실장으로 일하게 됐다.

가오샵은 손님과 1대 1 맞춤형으로 머리 스타일링을 하기 때문에 우선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머리를 하러 온 손님과 함께 헤어스타일을 고민한다는 것이다. 특히 T.P.O(Time(시간), Place(장소), Occasion(상황))를 고려해 손님들과 1대 1로 밀착해 머리스타일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학생들이 밀집한 대학 후문이다 보니 대학생들의 머리 스타일 고민도 함께 들



어준다는 김 실장은 면접과 관련된 헤어 스타일이나 본인이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위해 장기적인 플랜도 손님들과 함께 상의하고 있다.

또 직장인들의 경우 회사 분위기에 따

라 현재 유행하고 있는 헤어스타일과 장기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방향도 상담해주는 등 손님과 1대 1로 특화된 헤어숍이라는 특징도 지니고 있다.

김 실장은 “남성전용 헤어숍이 많지 않다보니 머리를 손질할 때 편하게 다니지 못하는 남성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가오샵은 머리를 하러 오는 곳 뿐만 아니라 손님들과 형·동생 사이가 될 수 있는 편안한 곳인 만큼 많이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또 “1대 1로 관리하다 보니 예약하지 않고 오는 손님들의 경우 헤어숍 이용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면서 “시간과 날짜를 미리 예약해두고 오시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오샵 예약은 대표번호(232-5022)로 하면 된다. /김종찬 기자

광주·전남 5개 시·군 ‘폭염주의보’ 내일 비 소식...무더위 한풀 꺾일 듯

4일 광주와 전남 일부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무더운 날씨는 오는 6일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광주와 광양·순천·나주·곡성·구례 등 전남 5개 시·군에 폭염주의보를 내렸다.

폭염주의보는 이를 이상 날 최고기온이 33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오는 6일 오후부터 광주·전남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차츰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김종찬 기자

7일 광주·전남 대부분 학교 쉬다

광주·전남지역 초·중·고등학교 대부분이 현충일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7일 휴교한다.

4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7일 광주·전남 1,132개 초·중·고 가운데 학교장 재량으로 휴교하는 학교는 835곳(73%)에 달한다.

광주의 경우 전체 초·중·고 313곳 중 177곳이 휴교한다. 초등학교가 61곳, 중학교 73곳, 고등학교 43곳 등이다. 전남에서는 전체 819곳 중 80.3%에 달하는 658곳이 휴교하며, 초등 376곳, 중학교 222곳, 고등학교 60곳 등이다. /조기철 기자

수능 6월 모의평가 “예년 같은 출제기조”

EBS 연계율 70% 유지...25일 성적표 통보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출제방향과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는 6월 모의평가가 4일 오전 전국 2,053개 고교(교육청 포함)와 425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이날 출제 기본방향을 설명하면서 학생들의 과도한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에 내실화할 수 있도록 고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예년과 같은 출제기조를 유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타당도 높은 문항을 출제하기 위해 이미 출제됐던 내용일지라도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문항 형태와 발상, 접근방식 등을 수정해 출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영역 및 제2외국어, 한문 영역으로 구성된다. 한국사는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다. 한국사 미응시자는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EBS 수능 교재·강의 연계율은 문항 수를 기준으로 지난해처럼 70% 수준이다. 영어가 73.3%, 국어 71.1%, 다른 영역은 모두 70.0%다. 연계방식은 영역별로 다르지만 개념이나 원리, 지문이나 자료, 핵심 제재나 논지 등을 활용하는 방법과 문항을 변형·재구성하는 방법 등이 사용됐다.

이번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지난해 6월보다 5만2,191명 줄어든 54만 183명이다.

광주의 경우 관내 61개 고등학교와 14개 학원시험장에서 1만9,588명이 응시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재학생은 1,255명 줄었고, 반대로 졸업생은 200여명 늘어 앞으로 재학생은 줄고 졸업생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며 “학령인구 감소가 이번 모의평가 지원자 수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의신청 기간은 7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성적표는 25일까지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조기철 기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4일 오전 광주 제일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신중하게 시험을 치르고 있다. /김태규 기자

교육부, 청암대 총장 면직보고 ‘반려’

서형원 순천 청암대 총장이 갑갑으로 사직서를 썼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이사장이 낸 총장 면직보고를 반려했다.

4일 청암대와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교

육부는 전남 청암대에 총장 면직보고를 반려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서 총장의 면직에 대해 “민원, 교직원 탄원 등이 접수돼 적법하게 의원면직이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청암대 총장 의원면직 보고를 반려 처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서 총장의 면직보고를 반려하자 학교법인 청암학원 이사들은 성명을 내고 “총장 면직결정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원천무효”라며 강병헌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훤친 가방 안고 자다 덜미

○·훤친명품가방 안고 길에서 잠을 자던 50대가 길을 지나가던 주인에게 덜미가 잡히는 바람에 결국 쇠고랑 신세.

○·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모씨(54)는 지난달 26일 새벽 0시 50분께 서구 치평동 한 마트 앞 길거리에서 문이 잠기지 않는 차량에 들어가 현금 20만원이 들어있는 명품 가방(시가 180만원 상당)을 훤친 뒤 인근 길거리에서 잠을 청하다 가방 주인 이 모씨(26)에게 발견돼 경찰에 붙잡힌 것.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가방을 훤쳤으면 멀리 도망이라도 갈 것이지만 이 배워서 나온 것인지 인근 길거리에서 잠을 자다 주인에게 발견됐다”며 “이씨는 지난해 8월 절도죄로 2년형을 선고받고 출소했으며, 누번 기간인 지난 2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20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훤친 것으로 조사돼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찬 기자

회사 사정상, 신창동 근린상가, 급매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 좋음
- 사무실, 병원, 헬스장등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11억
- 매매 - 7억 5천만원

문의. 010-6834-7400